



동안거
현성 스님 지음
민족사 | 9500원

겨울 선방에선 무슨 일이?

새벽 3시, 고요한 산사의 아침을 깨우는 원주스님의 도량석이 시작되고 종이 울린다. 지전스님의 죽비소리를 따라 예불을 본다. 이어 열중스님의 입선 죽비가 울리고, 아침 5시까지 새벽수행이 이어진다. 중간에 50분 수행하고 10분 행선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 아침 5시 방선죽비가 울리면 아침 5시 40분 발우공양 시간까지 100배를 하거나 요가, 산책을 한다. 공양후 오전 7시 50분까지 차담시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동안은 좌선시간이다. 11시부터 가사를 수하고 사시에불을 올린뒤 11시 20분 점심 발우공양이다. 공양후 차담과 자유시간, 2시부터 4시까지의 오후 좌선시간이다. 4시부터는 청소를 하고 5시에는 저녁공양을 한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의 밤정진시간이다. 취침은 밤 10시에 묵탁소리에 맞춰 이뤄진다.

‘민족사’ 출판원과 공모 당선작 용상방 짜기 등 41가지 주제로 백양사 운문암 동안거 살살히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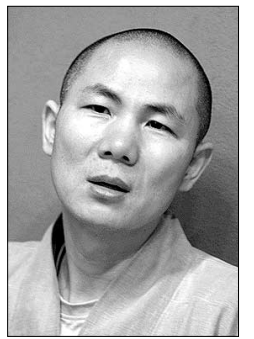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선방. 선승들은 여름 겨울 3개월 안거기간동안 어떻게 생활할까? 선방에서 수행중인 현성 스님이 2002년 음력 10월 보름부터 이듬해 1월 보름까지 장성 백양사 산내 선방인 운문암에서 체험한 동안거 생활을 기록한 책을 펴냈다. 책 <동안거>의 내용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스님들의 일상생활과 수행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 현성 스님은 2002년 늦가을 절망하나 풀리메고 운문암에 들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기록했다. 중앙승가대 재학생집 단문에 등단한 현



선방으로 유명한 수도암과 운문암은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장성 백양사 운문암 선방스님들이 1m까지 쌓인 눈을 치우는 모습. 사진제공=민족사

성 스님은 선방스님들의 생활을 글로 담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안거동안 휴식시간 등에 짬을 내 메모를 했다. 그러다 안거가 끝난후 기억을 더듬어 가며 글을 써 나갔다. 인연때문이였을까. 도서출판 민족사가 제1회 출판원과 공모를 했다. 곧바로 응모했고, 결과는 ‘당선’. 총 3장에 걸쳐 41개의 주제로 되어있는 <동안거>의 1장에서는 입산하여 용상방 짜기, 참선의 즐거움, 지대방 이야기, 운문암의 하루일과, 삭발하는날, 무명웃 풀하기, 산행, 율력까지 선방 소임 용어들이 소개된다. 또 2장에서는 발우공양, 선방의 구조, 도반, 스님들의 수행법, 반월산행, 가행정진, 외포고 쓸쓸한 길, 숲속의 동물들, 등

8세에 입산 출가한 광주 유마선문화원 원장 정암 스님(사진)은 ‘유마경’을 읽고 안심(安心)을 얻었다. 어머니에 이끌려 입산한 스님은 염불을 한번만 들어도 졸졸 외우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큰절로 출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통해 백양사 서운 스님께 동자승 수계를 받았다.



그런 스님이 20대 초, 서울로 올라와 그동안 일고 있던 불법과 세상의 부조화를 경험하며 정신적 방황을 거듭하다 몸의 건강까지 잃게 됐다. 폐결핵 3기. 겨우 치료를 마치고 기공치료를 위해 건너간 중국에서 ‘유마경’을 만났다. 북경대 지도교수에게서 선를 받았던 ‘유마경’을 밤 새워 읽어 내렸던 스님은 ‘세상에 유마법문, 불이법문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원력을 세웠고 이후 유마경에 대한 연구로 북경대학교 철학과에서 석, 박사 학위를

유마처럼 살자꾸나

재가자 위한 선 수행 지침서

받았다. 그것이 정암 스님이 재가수행자를 위한 선(禪) 수행지침서 <유마禪不二>를 세상에 내놓게 된 인연이다. 이번에 펴낸 <유마禪不二>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가려 뽑아 재가선수행자들을 위해 쉽게 풀어쓴 것이다. <유마禪不二>는 유마경이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온 정황, 유마경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 유마경의 구성과 불이법문의 참선 정신, 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승속불이와 유심정도의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는 유마경을 통해 유마거사처럼 ‘세간에 노닐면서 출세간의 선법과 함께 하는’ 선 수행자가 살아가는 것이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유마경 공부를 3단계로 나누고 <유마禪不二>에 이어 유마경을 원문(구마라집본)으로 공부하면서 불이법문의 선 수행체계를 확립하게 하기 위한 <유마경 공부>와 대선지식이 남긴 유마주석의 연구를 통해 불이법문의 선경과 선지를 체득하게 하기 위한 <유마妙妙>을 집필 중이다.

천미희 기자



유마禪不二
정암 스님 지음
하늘북 | 2만2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그냥 살라
 -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
 - 선방에서 길을 물었더니
 - 큰 스님 큰 가르침
 - 대산출판사, 정영성, 1만5000원
 - 민족사, 성법 스님, 9500원
 - 불광출판부, 무비 스님, 9000원
 - 고즈른, 서희동, 1만2800원
 - 문예출판사, 윤형근, 1만원
- 도서주문 (02)2004-8220



비구니 산사 가는길
이기와 글
노마드북스
1만5000원

삶의 의미 찾아나선 길

1968년에 태어난 이기와 시인은 서울 서대문 골레방다리 밑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았다. 6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하나밖에 없던 오빠는 그 무렵 집을 나갔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포장마차 일을 도우며 살아야 했고, 양부모부터 발가 벗겨 내쫓기는 학대를 받으며 자라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으로 어머니를 잃은 후 결혼했지만 무직의 남편은 알코올과 노름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하나 있는 딸을 키우기 위해, 생활을 위해 미장원 원장, 가정부, 숲집 마담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활해야 했다. 이처럼 시인 이기와는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왔다. 시인 이기와가 전곡에 있는 비구니 산사를 여행하며 느낀 단상을 모은 책 <비구니 산사 가는 길>을 내놓아 화제다. 이 책은 여행 중에 만난 여러 비구니스님

들을 통해 스스로 정화되는 과정을 담담하고 아름답게 그려놓았다. 자신의 근본을 찾아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위해 비구니 산사를 해매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법당 뜰에 근엄하게 앉아 있는 누렁이 한 마리를 보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저 개가 온 곳과 내가 온 곳이 틀리나 아니라 하나일 텐데, 어찌해서 저 개는 태연하고 난 불안한가?” 그 이후로 그녀는 그 누렁이처럼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순간순간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세상 어느 것에 대해서도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대하는 시인의 넉넉한 마음이 책 곳곳에서 훈훈하게 전해져온다. 그녀는 시종일관 ‘존재의 무상함’과 ‘삶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되물고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다.



백암록
성본 역해
한국선문화연구원
2만5000원

한글로 쓴 선문답 100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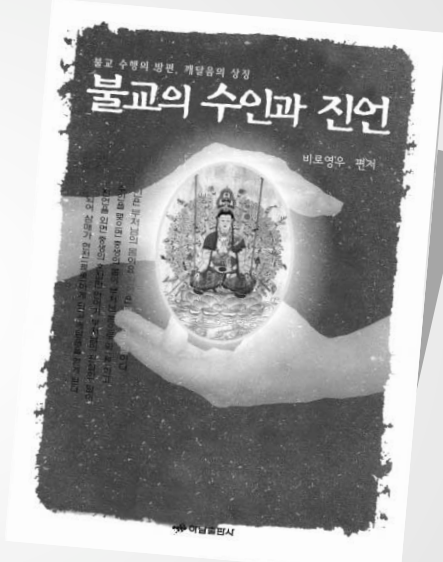
선문의 수행자들이 당대 선승들의 대표적인 선문답 100칙을 이해하고 선사상을 배우고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재인 <백암록>, 말하자면 선문답 100칙에 강의록이라 할 수 있다. <백암록>은 설무중현(980-1052) 선사가 당대 선승들의 어록에 선문답 100칙을 선택하여 해설한 독자적인 선사상을 원오국근(1063-1135) 선사가 수시(垂示, 간결하게 요약해 보여줌) 작어(著述, 화두나 송의 구절마다 논평) 평창(評講, 화두나 송에 대한 설법)을 첨가한 책이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인 성본 스님이 최근 발간한 <백암록>은 10여년 전부터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어려운 한자로 기록된 선문헌을 누구나 선문답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자세한 해설을 첨가했다. 성본 스님은 <백암록> 번역서 발간과 관련 “학자나 스님들도 어려운 한자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한 문법체계없는 한자를 번역하다보니 오역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한 글세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 어려운 책을 읽고 선법교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님은 “한자로 기록된 불교경전과 어록을 한글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번역해야 한다”며 “번역문장을 통해 내용과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작업했다”고 밝혔다.

수인은 부처님의 몸이요 진언은 부처님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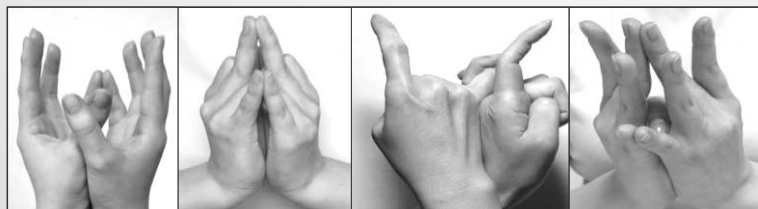
밀교에 밀(密)은 비밀스러움을 뜻하는데 중생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부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법이라는 뜻에 기인한다.

이 밀(密)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신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이다. 이를 함께 삼밀(三密)이라 하는데, 삼밀을 구유(具)하고 수행하면 실지(悉地)를 성취할 수 있고 큰 깨달음에 들어 삼명육통(三明六通)에 자재한 불보살이 된다.

삼밀 가운데 첫 번째인 신밀을 다른 말로 수인(手印)이라 하고 범어로는 무드라(mudra)이다. 두 번째는 구밀이라 하고 다른 말로 진언(眞言) 또는 다라니(dharani)라고 부르며, 범어로는 만트라(mhanttra)라고 한다. 세 번째인 의밀(意密)은 참된 성품(性品)으로부터 나오는 삼매(三昧)의 형상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보살님의 중생교화방편의 삼매를 상념으로 지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소개하려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신밀과 구밀인 수인과 진언이다.



비로염우 스님 편저 / 시룩배반 / 382쪽 / 값20,000원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리므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우므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은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물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전생(전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기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실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